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정환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말씀은 나의 힘!



내일(10월 1일),
위임목사님 월요새벽기도회
‘마가복음 강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말씀은 보혈로 거듭난 신자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벧전 1:23)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매일 삼고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사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 여기에 더해 우리의 영혼을 깨울 강령 한 복음이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최근 요한복음 강해를 마친신 위임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해’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에 깊이 각인하였습니다.(요 20:31) 이처럼 성경으로만 요한복음을 풀어서 더욱 풍성했던 은총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4시 40분, 모두 나와서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막 4:20)

동절기 저녁예배 시간 변경 안내

대 상 : 수요일 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변경일시 : 이번 주, 수요일 예배(10월 31일)시 부터 저녁 7시 시작

10월 교회 일정

3월(수)	CMTC 탐방 수련회 (오후 1시)
7월(주일)	2008년 2차 CMTC 훈련1 (찬양예배 후)
10월(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수요일 예배 후, 여전도회)
13월(토)	픽택안수집사·픽택권사 고시 및 면접 (오후 2시)
	총력 교회주변 전도 (오후 2시, 남전도회)
14월(주일)	2008년 2차 CMTC 훈련2 (찬양예배 후)
17월(수)	정기당회 (수요일 예배 후)
19월(금)	픽택장로 주재발표 (금요찬양집회 시)
24월(수)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 (수요일 예배 시)
26월(금)	제3차 청지기훈련 (금요찬양집회 시)
28월(주일)	종교개혁 주일, 제5차 학습 및 세례식 (찬양예배 시)

크리스마스 메시지⑥ (금요찬양집회)

휴전인가! 평화인가!

(빌립보서 4:1~7)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다.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말씀이다. “주 안에 서라”(1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2절) “동역자들을 도우라”(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4절) “관용을 베풀라”(5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6절)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7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본문은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전쟁 중에 있었다.(1절)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다. 이처럼 초대교회 역시 현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안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딤후 6:3~5)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평화’ 보다는 일시적으로 잠깐 쉬는 불안한 ‘휴전’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여신 것이다.(딤후 1:15~16)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의 자녀들은 크리스마스에 복잡한 절망의 세상으로부터 잠깐의 휴전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을 향해 기록되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빌 3:20~21)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Augustus)에 의하여 재건축된, 로마의 한 위성도시로서 법적으로 가장 높은 명성을 받았던 도시다. 순수하고 참되고 깊은 믿음을 갖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매혹적이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회적인 조직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지도자들의 시기와 분쟁, 십자가의 은총, 세상의 축복, 회개와 용서, 영생의 축복을 이해하고 있었다.(빌 3:18~19) 그러나 참 평화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참 평화를 모르는 자가 있다. 참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선물이다.(살후 3:16)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바울이아말로 세상의 아름다운 좋은 환경을 처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쇠고랑에 채여 죄인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라”고 외쳤다.(빌 3:1, 4:10) 바울은 자신 안에 섰다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싶었다.(엡 1:9~10)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그 불행한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엡 2:14,16,17) 변종, 교리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현실을 강하게 직시하며 자신의 인격과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외쳐야 한다. 비밀을 세례해야 한다.(골 1:20,24) 이 비밀은 보혈의 능력이다.(골 1:26~27)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단지 33년만을 이 땅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타락된 제국을 단단한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셨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 중복되지 않은 말씀을 추려서 3년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녹음하면 불과 42분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우 넓고 깊다. 또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많은 저주받은 인생들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셨다. 우리의 변종과 교리 또는 설교에 의하여 제한될 수도 없고 또한 지배를 받지 않는다.(골 2:2~3, 1:13~14)

신자들이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고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기 원하신다. 평강은 우리의 논쟁이나 변종 또는 외침 가운데서 잠깐 동안 쉬는 휴전과는 다르다. 크리스마스는 캐롤과 트리로 장식되는 기독교 절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언어도 문화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 잠시의 휴전이 아닌 참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는 말기유에 초빙하셨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눅 2:12~14) 예수님을 베들레헤의 말기유에 태어나시게 하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 열방이 평화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 크리스마스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삶을 위한 경쟁 속에서 얻는 잠깐의 휴전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쓴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소수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을 분별 아니나, 이 선물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불멸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휴전’과 같은 일시적인 ‘평화’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인가! “지금껏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아멘.

REMEMBER THIS WOMAN ON THE LAST DAY

⁽²⁹⁾but on the day that Lot went out from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³⁰⁾It will be just the same on the day that the Son of Man is revealed. ⁽³¹⁾On that day, the one who is on the housetop and whose goods are in the house must not go down to take them out; and likewise the one who is in the field turn back. ⁽³²⁾Remember Lot's wife. ⁽³³⁾Whoever seeks to keep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will preserve it. (Luke 17:29~33)

On the day that Lot went out from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the cities and inhabitants of Sodom and Gomorrah were completely destroyed. How much more dangerous and deadly can a situation be? Perhaps you can liken it to an extreme tornado that destroys everyone and everything in its path. At such a ti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getting saved and salvation comes only by listening to God. Lot's wife did not listen to God; she persisted in looking her own way. On the Last Day, you must remember this woman. Jesus used her as an example to save your life. Please listen. You are in a dangerous and dying position. Please do not just hear the words, you must believe them. You must act upon them.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s. On the Last Day, please do not look behind. No matter what, even if you hear screaming, do not look back.

Do you want Jesus to use your name as an illustration of what not to do? If not, then how come you keep on emphasizing the things of this life? Jesus mentioned Lot's wife in a serious discussion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Son of Man. Just prior, He talked about Noah and how "they were eating, they were drinking, they were marrying, they were being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v. 27) The point is that Jesus Christ's second coming is for certain. The Last Day is going to happen! Jesus specifically calls attention to Lot's wife as a warning for those still living during that time. It is so, so important for you to remember Lot's wife. Jesus did not use Sarah, Hannah, Ruth, or even the Virgin Mary as models for the Last Day. With so many wonderful, faithful, and important names in the Bible, why did Jesus pick Lot's wife? What does this woman have to say to you and me about the end times? Why does He want us to remember her?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e religious privileges of Lot's wife. This was a person who worshipped, prayed, and thought she was going to heaven. She and her husband had strong faith; they followed Abraham. (Gen. 12:4) They went through hard times and struggled, but continued to walk the pathway of faith. They made an altar to God and had a solid prayer life. They received so many blessings; they even had angels visit them. Lot's wife was blessed with a religious and righteous husband. (2Pet. 2:7) Their children also practiced faith. They had wonderful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to grow in the Lord. Their situation is not that different than yours. Today, churches doors are open everywhere. Media technology makes Christian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widespread. You can hear God's voice all over, and getting a Bible is not very difficult, even in Communist countries. Christian books line the shelves of the world's bookstores and can be accessed through the worldwide internet. Even with all these available religious privileges, they cannot save you. Gehazi, Elisha's servant, was a religious man who worked under a true prophet, but this did not save him. His disobedience brought leprosy to hi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2Kgs. 5:27) Demas, Paul's helper, was a Christian man who witnessed the grace of God touching others, but this did not save him. The Bible tells us he loved the

world more than Christ. (2Tim. 4:10) Judas, Jesus Christ's disciple, lived with the Lord and served under Him, but this did not save him. He betrayed Jesus with a kiss. (Mt. 26:48~49) These people looked like God's children, but they were not. Jesus said about the end times, "At that time many will fall away and will betray one another and hate one another ... Because lawlessness is increased, most people's love will grow cold." (Mt. 24:10,12) He also said,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will show great signs and wonders, so as to mislead, if possible, even the elect." (Mt. 24:24) I am pleading with you to go God's way. If you do not move in His direction, the fire that is going to come down to earth on the Last Day will destroy you. Are you going to disobey? The Creator God, the Son of God, who died for you and bled for you has a way out, but you keep saying no, no, no. You keep looking the wrong way. You keep turning around like Lot's wife.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e relative's love and prayers for Lot's wife. She had a great relative in Abraham, Lot's uncle. Abraham gave Lot and his wife and their family first choice in property, delivered them from captivity, and prayed six times for God to spare their land. His intercessory prayers brought two angels to her doorstep to show mercy to her and her family. They were given an escape route for potential deliverance. You too have people praying for you. I know this church and certain prayer groups around the world are praying for your soul before the throne of grace, not only that, but Jesus and the Holy Spirit are really praying for you.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at Lot's wife perished. How? In the midst of her position and privilege she died. She had opportunity, but her real treasure was in earthly things. The consequence was that both her treasures and self perished. What did she look at? Perhaps she turned around to look at her home, gardens, or friends? Maybe she thought about her money, jewelry, or special something. Whatever her reason, her turning around revealed her disobedience and unbelief. It showed her bondage to the things of this world. Her death was sudden and shocking. She died in the act of sin. Her heart was in Sodom, not in the Lord. Where is your heart? Lot's wife became a pillar of salt, a statue of sorts. What is to become of you?

My dear friend, you and I are living in the midst of Sodom and Gomorrah. Please do not be a stupid Christian whose pride interferes with God's grace. Please do not be a stupid Christian who places value in fame, fortune, and fun. Please do not be a stupid Christian whose own habits, tastes, and preferences make you turn around. We are living in a doomed place. Listen to Peter's warning,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in which the heavens will pass away with a roar and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with intense heat, and the earth and its works will be burned up. Since all these things are to be destroyed in this way, what sort of people ought you to be in holy conduct and godliness." (2Pet. 3:10~11) Please learn from Lot's wife and turn from passing things to the eternal. Get ready for the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

다음 주일 학교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²⁹⁾“**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³⁰⁾**“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³¹⁾**“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³²⁾**“롯의 처를 생각하라**

⁽³³⁾**“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29~33)



김성파 목사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졌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강력한 태풍과 비슷합니다.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은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여인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지만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설사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도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좇아합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임할 때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시면서 롯의 처를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은 노아와 노예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27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롯의 처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경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사나하 한나, 롯, 심지어 동정녀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경이롭고 신실함이 중요한 많은 인물들을 제쳐두고, 하필 예수님은 롯의 처를 택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주는 교훈은 마지막 때에 대해 우리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은총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롯의 처가 받았던 영적인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베드리고 기도하며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와 남편에게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 12:4) 힘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혼들림 없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 심지어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롯의 처는 경건하고 의로운 남편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벧후 2:7) 그들의 자녀들 또한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오늘날의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TV 프로그램을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공산국가에서조차 어렵지 않게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기독교 서적들이 서점 안에 진열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믿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개사이는 참 신자라 믿어서 일했던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왕하 5:27) 바울을 도왔던 데마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것이 그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

니다. (딤후 4:10)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 밑에서 일을 도왔지만 이것이 그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마 26:48~49)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 복음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0,12)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제발 하나님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날 이 땅에 떨어지게 될 불이 여러분을 멸할 것입니다. 아직도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곧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피할 길을 주셨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라고 거부하십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만 바라보며 롯의 처 같이 뒤돌아보십니까?

중보기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롯의 처를 위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남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친척이 있었습니.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구해주었으며, 그들이 살던 땅을 용서해 달라고 여섯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중보기도로 두 천사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문 앞까지 왔습니. 그들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와 세계 곳곳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은총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롯의 처가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녀가 가졌던 지혜와 특권 가운데서 롯의 처는 죽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의 진과 불의에 이 땅에 있었습니. 결과적으로 그녀 자신, 그녀의 보물도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집과 정원, 친구들을 보고 뒤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재물이나 보석, 귀중품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 이유가 어찌됐든 뒤를 돌아본 것으로 그녀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의 것에 매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라 소돔에 있었습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롯의 처는 곧 아무 볼품 없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땅에 물집, 해마에 가지를 두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습관, 취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돌아서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멸망당할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작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노 기록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벧후 3:10~11) 롯의 처를 보고 깨달으십시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서 돌이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9. 26.)

주의 재림의 날은? (마태복음 24:3)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였다.(마 24:2) 십자가가 아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판 언언에 무척이나 걱정이나 걱정이 되었다. 이후에 제자들은 벳다니아로 가는 길,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질문하였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마 24:3)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즉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은 매우 험악하여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약 5:8) 고난과 핍박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벧전 5:4)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며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실 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그리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둘 때 재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다.(골 3:4)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행 1:11)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요 14:2~3) 그렇다면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떠한가?

미혹하는 날이 될 것이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마 24:4,5,11)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의 미혹은 더욱 치밀해지며 과감해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딤후 3:13)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확신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후 4:1~2) 신자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죄악이 관영할 때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죄악은 더욱 관영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느니라"(마 24:37~38) 노아를 통하여 100년 넘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증거되었지만 이들의 죄악은 더욱 판단해졌다. 결국 사람들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물심판은 시작되었다. "옛 세상을 물속에 아니하시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물 내리셨으며"(벧후 2:5) 지금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 이상으로 죄악이 관영함을 알 수 있다. 기상이변을 통한 재해는 최첨단 문명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 불감증에 걸려 재림의

날에 무감각한 우리는 아닌지 살펴보자.(눅 21:25~27) 주의 재림의 날은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의심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의심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3~4) 이들은 일어나서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3,12) 악한 자들의 핍박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형제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일 3:13) 주의 재림의 날은 의심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재림의 날은 갑자기 임한다. "변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할도 그러하리라"(마 24:27)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막 13:36)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일대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2~3) 악한 자들은 재림의 때를 부정하며 성도들에게 격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악인에게 참 평강은 없다.(사 57:21) 괜히 악한 자들의 미혹에 빠져 현실을 안주하지 말고 매순간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자.(눅 21:35~36)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동방하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찬 163장)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신자는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의 미혹은 심해질 것이다. 죄악은 더욱 관영해지며 의심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어느 순간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 3:10)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보혈로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뜻 찬사로 나와서 영접해라."(찬 167장) 아멘.

베드로와 같이,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대보다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사용하며 주시니 77명의 일꾼들이 기도로 영도 받으리니 맡겨주시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온 교구 식구들의 집은 교회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1부 예배를 마치면 교육관 508호에서의 영성훈련을 통하여 구역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구역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 뒤에는 기쁨으로 자원봉사에 임하며, 교회 주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써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일에는 4부 예배 후 분당 112호에서 교구 모임으로 모이는데, 이 시간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며,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한 20교구

험을 당하는 교구 식구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교구 모임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는 지체임을 알게 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요즘은 많은 교구 식구들이 10월에 있을 교구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세대와 중·고·대·청년부에 소속된 성도들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등으로 심방하고 있으며, 이들을 품기 위해 교구의 모든 일꾼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있었던 초청 전도집회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낙심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모두 나와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5개의 교구팀과 6개의 연합팀이 은혜 중에 단가선교를 잘 다녀왔으며, 지금은 11월 중에 나갈 단가 선교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 가나니!"(엡 2:22)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가 되며, 함께 지어저가는 20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상승(정로, 20교구장)

우리의 팀장은 성령님!

믿음으로 하나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믿음의 팀들이 고백하는 은총을 나눕니다.



■ 에바다부 2팀

- 출국을 앞두고 다리에 갑자기 결절홍반이라는 질병이 생겼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쉬어야 한다고 하셨다. 사단이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꼭 가야 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정지호 교사)
- 인간의 나약함일까? 우리는 두려웠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기도하였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였다. (김희정 교사)
-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선교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맹한호 학생)
- 연약한 자를 들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다. (이유미 집사)
- 방문한 이들의 시종 길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육신은 피곤했지만 오히려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김정진 안수집사)
- 처음에는 어떻게 농아인들을 만날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순전히 만날 수 있게 하셨다. 농아라는 것이 선교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김병권 안수집사)
- 시장을 정밀하다 우연히 농아인을 만난 일, 지하에서 일하는 농아인이 잠정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수화를 보고 한두 명씩 우리 주위로 다가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 일...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 (최진원 집사)
- 우리는 농아인들을 만나기 위해 재대시장을 찾아 헤메기도 했고, 이집 저집 찾아다니며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문전박대를 당하여 민망히 돌아서기도 했다. (주순희 권사)
- 우리는, 빌립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관아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참 놀라움과 기쁨이 있음을 깨달았다. (윤명범 안수집사)

■ 중원복지관팀

- 게르 사역과 노방전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최인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김성우 집사)
-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게르를 찾아 떠나는 순간순간이 매우 행복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복선영 타교성도)
- 양치는 소년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낭랑한 목소리로 전도지를 읽었다. 즐거워하는 소년은 계속해서 전도지를 읽고 있었다. "아!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십니까!" (이정자 성도)
- 물에 빠져 신발이 다 젖고 몸에선 냄새가 나고...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들을 두고 돌아갈 수 없었다. (최성기 안수집사)
- 사역을 준비하면서 모든 음식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인간은 나약하였다. (조병문 타교집사)
-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 주셨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 (김성태 타교성도)
- 말씀과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였다. 열접기도를 함께할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박재우 타교성도)
-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자 마자 얼굴이 굳어지셨다. "어디 아프세요?"라고 하자 눈을 가리키셨다. 우리는 할머니의 눈에 손을 대고 눈이 치유되어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기도했다. (최윤미 타교성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1일(토) ~ 9월 28일(금)	8·6·7·18·19·21 대구 청년·2부 연합	이기옥
9월 21일(토) ~ 9월 28일(금)	15·1·6·11 23 교구 연합	이흥우
9월 22일(토) ~ 9월 29일(토)	15 교구 청년·2부 연합	정철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토) ~ 10월 6일(토)	17·24 교구 연합	조문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일(토) ~ 10월 10일(수)	22 교구	홍원석
10월 2일(토) ~ 10월 9일(토)	이연천장대 2	김옥권

■ 임마누엘찬양대팀

- 어려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하는 한 할머니가 잊혀지지 않는다. (김태광 집사)
- 찬양을 듣고 울어드는 아이들, 찬양을 듣고 따라부르며 감동에 겨워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진일 집사)
-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보내셨으니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촌사역, 병원전도, 공원전도 등을 하면서 처음에 거절하는 듯했지만 그들은 집중하여 들어주고 마침내 환한 얼굴로 변해갔다. (김예숙 집사)
- 우리가 공원에서 찬양할 때 꼬마가 찬양에 맞춰 춤추다가 함께 찬양할 일, 세 분의 여자에게 전도하는데 술에 취한 집사가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주님을 영접한 일, 많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다. (장순옥 집사)
- 복음을 전할 때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아주머니, 우리의 찬양을 들으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던 마음이 따뜻한 할머니, 우리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던 집사 여인,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것이다. (염선자 집사)
- 병원에서 찬양을 하자 병원 안에 있던 할머니, 아주머니,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흘리셨다. 찬양이 끝나후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다. (서혜덕 집사)
-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만 바라보았다. 고בל료와 같은 기적을 만나게 하시며 눈물로 성경을 부여잡고 "십자가로 가까이"를 함께 부른 자매를 보면서 진정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새삼 깨달았다. (임창식 장로)

■ 14·15·18·24교구·대학부 연합팀

- 해맑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우리를 따르며 함께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할 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권오준 안수집사)
- 사역 중에 다리가 아픈 팀원이 한 계에서 강간에 해 달라고 기도하자 바로 응답을 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해 하셔서 감사드렸다. (유형근 집사)
-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했다. (허은숙 집사)
- 비포장 도로를 달릴경리는 차 속에서 흔들거리며 찾아간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잘 받아들이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았다. (홍철순 집사)
- 운전기사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였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다. (하인순 권사)
- 팀원들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만나고자 하는 심령들을 만나게 하였고, 팀원들 간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 (조운숙 권사)
- 첫날부터 함께 "아멘!"을 외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장담하던 운전기사가 사역이 끝날때부터 술에 빠져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기도하였고 그는 회개되었다.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운전기사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김근우 학생)
-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이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팀원들을 통하여, 운전기사를 통하여 하나하나의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최안나 학생)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남동생의 전도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지도 4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큰딸은 초등학교생이 되었고 어느새 둘째도 태어났다. 교회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내가 하는 줄로만 알았다. 교회를 가게 된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주일예배에 갈 때마다 찬양대의 찬양이 나의 기도소리 같이 눈물이 나고 위임목사님 설교에 나는 무너져 갔다.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솔직히 나는 세상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것에 아주 많이 약하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먹고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하는 기도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탐심 때문이라는 생각에 조금씩 하면서도 긴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 내가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품을 때도 있었다.

작년에 둘째를 임신하여 더운 여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금요찬양집회에 목사님께서 8월부터 크리스마스 설교를 시작하셨다. 믿기 전에는 그저 공휴일이고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도로 생각했던 나에게 매주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과 찬양은 신선하게 다가왔고 다시 나를 열적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과연 어느 누구의 이야기 그 후손날 차치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묻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숨겨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밖에 못 사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잘못했다는 고백만이 흘러나왔다.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를 때면 뱃속의 아이도 기쁘지 연신 움직였다. 아이를 낳고 한 달여 만에 12월 25일 성탄예배를 드렸다. 그 날의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내 8월부터의 그 은혜가 함께하며 나를 휘감아 가슴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예배 마지막에 (거룩한 성)을 온 성도가 함께 부를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올해 다시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시작하셨다. 또 다른 새로운 힘을 얻을 것 같다. 매우 기대가 된다. 내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며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가 되길 소망한다. 다시 부르는 크리스마스 찬양처럼 남은 시간도 온 몸을 떨며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한다.

김지현(집사, 1교구)

기도원에서 만난 예수님

30년 전 충현기도원 조정 작업할 때, 남편과는 약혼 중이라 함께 동행하였다. 그 당시 남편은 충현교회 고인이고요, 나는 타 고인이다. 그 때 나는 기도원 주변 언덕과 산등성이에 어린 잣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흙을 밟아주며, 잘 자라기를 소망했었다. 그 후로 나는 충현교회 고인이 되었지만 기도원에는 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나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복이 생겼다. 그리고 요일,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향하는 교회버스에 몸을 싣고 30여 년만에 기도원을 찾게 되었다. 은혜 중에 화요일회를 마친 뒤, 기도 할 장소를 찾다가 기도원 주변 언덕에 굳게 자리 잡은나무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 나무가 그 때의 어린 나무였구나!’ 옛날 생각이 너무 3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 따라 컸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 기도원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에 감사의 기쁨이 넘쳤다. 20대부터 중년인 50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입술을 열게 하였다. “찬송과 말씀 속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항상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찾아와 댁까지 문밖에 서서 늘 기다리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Yes), 안 된(No), 그리고 기다림(Wait)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처럼 30년만에 찾은 기도원에서 그동안 나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보았다. 이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동산을 찾으리라 다짐하였다.

문경숙(권사, 16교구)

나의 팔 잘렸을 때보다 더 아픈 것 알게 되었어요

토요일 저녁 10시 30분, 김포시 하성지역 물골길 안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행버스 안에서 아기 자매와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김포지역 리더로 섬기는 아기 자매는 토요일 저녁이면 친정에 가는 기분으로 김포를 간다. 그리고 그 지역 물골 형제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데 열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4년 내내 김포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포는 그녀의 고향이고 거기 사는 물골 형제들은 고향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석 달 전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온 아가자매에게 “김포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물었다. 우선 집 가까이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낯선 한국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포에서는 문을 열면 상큼한 공기와 물골 형제들의 우정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아기 자매는 “서울로 이사 온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 교회가 아주 가깝다고 좋아한다.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려면 그 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남편 루아와 아들 발칙카, 여동생 하루나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금요찬양집회는 매우 좋아요. 금요일만 기다려요. 성교 파송 때마다 막 눈물이 나오, 십자가 복음을 들고 모르는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에 가슴이 흔들려요. 아직 한국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픈 것은 나의 팔 잘렸을 때보다 더 아픈 것 알게 되었어요. 찬송 배우는 것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는 어려웠요. 그래도 <올려나루>는 좋아요!” 금요찬양집회를 할 때 눈이 반짝거린다.

성경을 매일 읽는지 물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반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가던 이야기를 읽는 나?”라고 물었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직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고 미안해한다. 밤이 되어 식구들이 다 잠들고 나면 매일 한 장씩을 읽는다고 한다. 물골 성경으로 읽고 다시 한국어 성경을 본다고 한다. 통역으로 섬기는 나라 자매의 팔에서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아들 발칙카를 보면서 물었다. “발칙카의 머리를 왜 깎았어요?” “뒤쳐서요.” 물골 종습은 세 살이 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물골 습관에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발칙카가 다라끼로 고생했는데 병원에 다니기도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여 나갔다고 한다. “발칙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던 발칙카를 보면서 걱정이 되어 물었다. “어려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답하는 그녀, 재방도로를 따라 오면서 강물에 비친 불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 같았다.

(물골길 교사, 외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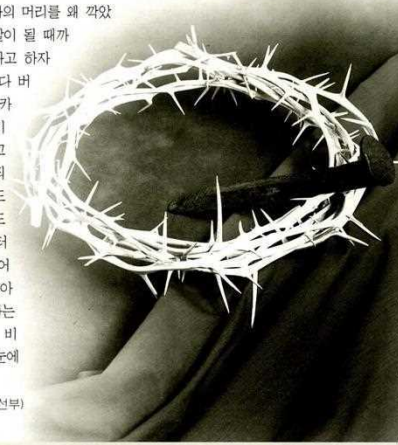
믿음의 순종

매일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엔 교회에서 남전도회 지회별로 모임을 갖고 각 교구별로 알려진 전도구역으로 이동한다. 그 누구도 나를 기다리거나 반겨주지 않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있는 전도지를 들고 힘껏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종성한 삶을 삽니다!” 이처럼 길가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전도의 소중함도 충분히 깨달았다.

이처럼 생각이 바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놀랐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단순한 이해차원을 넘어, 믿고 깨달아졌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옛적 동안을 그러하라”(수 6:3)는 말씀에 따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현재 나의 모습을 회개하였다.

전도를 하되보면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았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나의 의지로 가득채 주님의 말씀을 간파해 버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정복할 수 없었던 예리고 점령사건을 통해서 나는 믿는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신현옥(집사, 11교구)



2007년 피택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2007년 피택자 교육을 종강했습니다.
지난 6개월, 피택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다듬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나이 오십을 넘어서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나 자주 헤아려봅니다. '복음 외에 내게 진정 가치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하는 날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은혜와 공화와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은총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침치기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과 면류관을 은혜로 받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김동태 피택안수집사)

인물의 경우

피택 교육 기간에 배운 과정은 즐거운 생명의 시간이었다. 죄로 인해 불순종하던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간씩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매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둠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봐옵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처음 찬양대에 설 때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찬양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 속에 진토처럼 불이 있던 무의식이 양과 겉질처럼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오늘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나!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세상 끝까지 천국에서 저와 만나셔야죠!"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아버님과 어머니에게 주님의 공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지난 주에 시고모님이 동쪽이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통하여 믿음으로 가정에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은총의 자녀로서 뜻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비침이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김남빈(집사,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는 수요일(오전 11시) 예배를 섬기고 있다.

속에서 더욱 깨어지게 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보혈의 은총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매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청량제임을 찬양한다. 형식적으로만 주일성수하던 자화상을 믿음으로 하물며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미한다.

교육 중에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미하고, 먹보라도 더 겸은 불순종한 자의 삶을, 교육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1시간 전부터 교육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셨고 세상일로 바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공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주시를 감사한다. "혼탁한 내 모습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듯이 먼저 내 무거운 죄를 고백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둔다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내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 갈 길을 알려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침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류태준 피택안수집사)

다 의지하고, 다 맡기니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피택권사로서 임명하여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피택된 것을 알고 기쁨보다 많은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데...' 성직 탓으로 앞에 서서 대표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못나이기 때문 감사하는 마음보다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서 은혜로 받고 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의지와 뜻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동안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러나 주님께 다 의지하고 다 맡기니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한 내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겸손함과 기쁨으로 너그러워지기 시작했다.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총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2:20 말처럼 살아 가며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몸에 태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몸 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나는 정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할 뿐이다. (김두은 피택권사)

회개와 감사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 번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 이것이 맨 처음 피택권사 교육을 받으러 나갈 때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6개월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나를 불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회개와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모르는 피택권사들 사이에서 서먹서먹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찬양동상, 권사회 수련회 봉사를 통하여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 훈련 중에 육신은 고단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때 모든것을 감당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권사로 세우시는 나의 신랑 성장을 위하여 이니. 우리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뒹글까지 전하기 위해서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깨달은 복음을 기초삼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희숙 피택권사)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안으로 너무도 단단해진 나 자신, 나의 속사람을 보며 새벽기도회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러 앉을 수 없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한 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 울고 또 울었다. 많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휴가를 내어 기도원에 올라갔다. 처음으로 5일간 금식기도를 했다. 정말 좋으신 나의 주님과 만났던 시간을 가졌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소원했다. 모든 이들을 교단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볼 수 있길 소원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매우 단단한 내 속사람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람을 대하면 속으로 나와 비교하며, 있는 자의 여유를 즐기며, 교만한 마음을 감추고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가장하며 말하며 행동한다. 그렇다. 오랜 세월 교안으로 너무도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기에 바닷 한 구석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을 뿐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치 내 속사람은 단단한 교만의 콘크리트 속에 갇혀 폭발도 못하고 입만 살아서 가증된 말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주님 이런 내가 보이십니까? 성령님! 살펴 주세요!"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외치고 또 외친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 (조인숙 피택권사)

부독사				
박진기	류병렬	여국근	안창득	정진호
9세부	13세부	15세부	15세부	14세부
김희환	차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훈
3세부	4세부	8세부	7세부	12세부
하종철	안지현	장종신	양지용	이성진
5세부	12세부	22세부	장남길	18세부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김준희	윤승근
10세부	10세부	10세부	10세부	10세부
황진섭	유재근	강명구	전성원	김철규
10세부	10세부	10세부	전성원	10세부
이용진	양태선	유성택	유현철	탁정훈
14세부	12세부	17세부	19세부	2세부
김관수	최성준	최강진		
14세부	6세부	22세부		
■ 어진도사				
윤은진	김연식	홍은재	이옥주	김말자
11세부	16세부	17세부	2세부	6세부
김정연	정복순	최보선	한성희	김정자
14세부	14세부	14세부	14세부	14세부
김정민	이국순A	류진희	전은일	임태주
14세부	20세부	20세부	15세부	15세부
강명미	유지국	이복순B	강호석	한은영
22세부	9세부	42세부	22세부	19세부
이혜숙	정문자	김경순		
7세부	13세부	24세부		
■ 현양감독				
가문승	서준성	김한섭		
10세부	10세부	10세부		
전진태	최기연	김진영	장안희	노은영
10세부	10세부	10세부	10세부	10세부
선 고 사				
최소환				